韓國中東學會論叢 第30-1號
韓國中東學會, 2009, 33-73

페르시아 문화의 동진과 조로아스터교*

신 양 섭**

차 례

Ⅰ. 서론
Ⅱ. 조로아스터교 이전의 이란의 전통종교
Ⅲ. 자르토쉬트의 생애
Ⅳ. 조로아스터교의 역사적 배경
Ⅴ. 중앙아시아 및 중국의 조로아스터교
Ⅵ. 결론

* 본 논문은 2006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6-323-A00020)
** 한국외국어대학교 이란어과

<Abstract>

The East Expansion of Persian Culture and Zoroastrianism

Shin, Yang-Sup
HUFS

Sogdians were Iranian peoples and from 6th Century BC lived in Sogdiana which was located in Zarafshan valley between Amu-Darya and Sir-Darya. They have never established a big empire or kingdom. But they established many colonial cities along the Silk Road from Khorasan to China proper as strongholds for their trade. They found their way into the court of Byzantine Empire to the west and the court of China to the east. In fact, therefore, the owner of Silk Road was historically the Sogdians. The Sogdians were not only traders but also cultural mission. They transmitted the Chinese culture to the west and conveyed Persian and Byzantine culture to the central and east Asia. In particular, their unrestrained and free spirited character didn't make them adhere on the only one religion. They embraced the Persian religions, Zoroastrianism and Manichaeism as well as the Nestorian Christianity from the west and Buddhism from the south and transmitted these religions into the Central Asia and China, where they played a great part for the cultural development. So in this article the concerns are focused on the Oersian traditional religion Zoroastrianim and its spread.

Key Words : Zoroastrianism, Zartosht, Avesta, Zand, Sogd, Sogdiana, Manichaeism, Persia, Silk Road, China

I. 서론

조로아스터교는 인류 최초의 계시 종교들 가운데 하나일 뿐 아니라 문화사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종교이다. 조로아스터교는 고대 인도의 베다(Veda) 종교 혹은 훨씬 이전의 인도-아리안 계 토속 신앙과도 연계되어 있다. 조로아스터교는 또한 비슷한 시기에 융성했던 불교, 유대교, 기독교, 마니교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기원전 6세기부터 기원후 7세기까지 1,000년 이상 이란에서 가장 중요한 종교의 지위를 누려왔다. 하지만 서민들에게는 한없이 난해한 교리와 그 공동체의 차별적 신분제도를 극복하지 못하고 신 앞에서의 평등을 주창하며 생활 속의 종교로 자리 잡은 이슬람에 밀려 오늘날에는 소수종교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로아스터교가 후세의 종교와 문화에 미친 막대한 영향력은 그동안 수많은 학자들이 이미 쇠락한 이 종교의 연구에 매진한 이유이기도 하다. 자료의 성격과 근접성 때문에 조로아스터교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거의 불가능하다. 각 시대별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며 그 주제나 장르의 경계를 설정하기에도 큰 어려움이 따른다.

고대의 조로아스터교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자료는 조로아스터교의 경전인 아베스타(Avesta)[1]이다. 고대 동부 이란어로[2] 씌어진 아베스타는 지식층이었던 조로아스터교 승려들의 가장 큰 업적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이 사산(Sāsān)제국 시대인 3세기경에 구전으로 혹은 기록으로 남겨진 다양한 전승들을 수집하고 편집해서 성문화한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전해지는 것은 오직 그 일부에 불과할 뿐이다. 사산제국의 호스로우 1세(Khosrou I, 531-579 재위) 시대에 이미 총 21개의 장(nask)으로 구성된 방대한 분량의 원문이 존재했었다. 이 원문의 일부는 고대 동부 이란어였던 아

1) 중세 파흘라비어로는 Abestāg

2) 인도-유러피언 어족의 한 갈래인 아리안(Aryan) 혹은 인도-이란(Indo-Iranian)어족은 고대에 고대 이란어(Old Iranian)와 고대 힌디어(Old Hindi)로 나뉘었다. 고대 이란어는 동부 이란어인 아베스타語(Avestan)와 서부 이란어이자 아케메네스 제국의 언어였던 고대 페르시아어(Old Persian)로 나뉘고 고대 힌디어는 베다어(Vedic)와 산스크리트어(Sanskrit)로 발전했다. 이 때문에 고대 이란어의 어휘를 연구할 때 그에 대응하는 베다어 및 산스크리트어의 어휘를 제시하는 방법론이 즐겨 사용된다.

베스타어로 일부는 중세 페르시아어였던 파흘라비어로[3] 기록되어 있었다. 이 방대한 분량의 아베스타 이외에도 소위 "잔드(Zand)"라고 불리는 아베스타 원전의 주해서도 있는데 이것 역시 파흘라비어로 기록되었다. 이란에 이슬람이 진출한 이후인 9-10세기에 조로아스터교 승려들은 덴카르드(Dēnkard) 및 분다히쉰(Bundahishn)과 같은 아베스타 원전의 요약집도 편찬해냈다. 이처럼 오늘날까지 그 일부나마 전해지는 아베스타[4] 및 그 주해서인 잔드와 요약집들이 조로아스터교에 대한 가장 믿을만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고대의 역사적 사건을 기록한 아케메네스(Achaemenes) 페르시아 제국의 비문들 또한 비록 단편적 지식이나마 당대의 조로아스터교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또한 헤로도투스(Herodotus)를 비롯한 그리스 역사가들이 남긴 저서들도 광범위하고 다양한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지만 지나치게 그리스 중심적 시각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객관적 자료 이외의 것들을 참조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중앙아시아 및 동아시아 지역의 조로아스터교에 대한 자료는 그동안 거의 중국의 기록에만 의존해 왔다. 하지만 19세기 말부터 중앙아시아 및 중국의 서부지역을 탐험한 오렐 스타인(Aurel Stein)[5]을 비롯한 서구 학자들에 의해 수많은 고문서들이 발견되면서 이들 지역에서의 조로아스터교에 대한

---

3) 중세 이란어 역시 동부 이란어와 서부 이란어로 나뉘는데 동부 이란어에는 소그드어(Sogdian), 하레즘어(Khwārezmi), 호탄어(Khotanese), 토하르어(Tokharic)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서부 이란어는 사산제국의 공식 언어였던 파흘라비어(Pahlavī)이다.

4)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는 아베스타는 다음과 같이 총 다섯 종류가 있다. 첫째, 찬송가와 기도문을 담고 있는 야스나(Yasnā)는 총 72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에 28장이 가타(Gāthā)이다. 가타는 자르토쉬트 자신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베스타 중 가장 오래된 부분이다. 둘째, 야스나에 대한 보충으로 수집된 비스파레드(Vispared)는 총 3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천지창조, 우주에 대한 지식, 종교규범, 신자들의 의무와 예절을 내용으로 하는 벤디다드(Vendidād)는 22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넷째, 창조주에 대한 찬양과 천사 및 기타 신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야쉬트(Yasht)는 총 21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종교 의식과 축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호르데 아베스타(Khorde Avesta)는 소위 '小아베스타'라고 불리며 사산제국의 샤푸르 2세(Shāpūr II, 241-272 재위) 시대에 편집되었다.

5) 오렐 스타인은 1907년 둔황 지역을 탐험하던 중 현지인으로부터 고문서들을 입수한 후 이를 연구해 Die soghdischen Handschriftenreste des Britischen museums. I. Teil: Die bunddhistischen Texte 라는 이름으로 1928년과 1931년에 각각 제1권과 제2권의 저서를 출판했다.

비교적 상세한 정보들이 밝혀졌다. 또한 구-소련 시절에 러시아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통해 실크로드를 따라 조로아스터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비문들을 발견했다. 그 결과 중국 문헌에서만 한정적으로 제공되던 중국 및 중앙아시아의 조로아스터교와 그 문화에 대한 정보가 풍부해졌으며 이를 토대로 조로아스터교 문화에 대한 많은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었다.

중앙아시아 및 중국에 조로아스터교와 그 문화를 전파한 주인공들은 이란계 민족이자 실크로드의 주인이었던 소그드 족이었다. 그들은 역사상 한 번도 거대한 국가를 건설한 적이 없었지만 호라산에서 중국본토에 이르는 실크로드 상에 수많은 식민 도시들을 건설해 무역의 거점으로 삼았으며 서쪽으로 로마 제국(중세 이후에는 비잔틴 제국) 및 페르시아 제국과 동쪽으로는 중국을 오가며 양쪽의 특산품들을 운반했다. 하지만 소그드 상인들은 무역상이자 동시에 문화의 사절이었다. 양쪽의 세계를 오가며 중국과 로마 및 페르시아 문화를 연결해주는 중개자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특히 그들의 문화를 수용하는 자유분방한 기질은 어떤 한 종교만 고수하지 않고 모든 종교를 당시의 상황에 따라 모두 포용하게 했으며 그래서 비잔틴 제국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네스토리안 기독교나 페르시아에 근원을 둔 조로아스터교와 마니교 그리고 인도에서 발생한 불교를 시대에 따라 모두 수용했을 뿐 아니라 이를 멀리 중국까지 전파시켜 동아시아의 문화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먼저 조로아스터교 출현 이전의 이란의 종교적 배경과 인류 최초의 계시종교를 만들어 낸 자르토쉬트의 생애를 간단히 살펴본다. 그리고 우리가 그 역사를 추적할 수 있는 아케메네스 시대부터 조로아스터교가 실질적으로 그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산 제국 시대까지 각 시대별로 조로아스터교의 현황과 발전 과정을 분석한 후 본론으로 들어가 조로아스터교가 동쪽으로 진출하며 중앙아시아 및 중국에 어떤 문화적인 영향을 끼쳤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Ⅱ. 조로아스터교 이전의 이란의 전통종교

종교의 오래된 형태는 항상 새 것과 동시에 존재하거나 혼합된 형태로 존재한다. 자르토쉬트(Zartosht)[6]의 종교적 비전(daēnā)도 그가 자신의 교리를 설파하기 이전부터 이미 이란 민족들 사이에 서서히 퍼져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르토쉬트 자신이 만들어 낸 종교적 요소 가운데에는 이란 민족의 전통 종교의 요소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조로아스터교를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은 조로아스터교 출현 이전 이란의 종교적 배경을 분석하는 것이다.

기원전 3000년과 2000년 사이에 스스로를 아르야(Arya)라고 부르며 느슨하게 통합되어 있던 일단의 민족들이 이란 고원으로 이주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정착한 땅을 "아르야의 땅"이라는 의미의 이란(Irān)이라고 부르며 정치적으로나, 언어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토착민족들을 압도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종교의식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신(daēva)[7]에 대한 희생의식(yasna)[8]으로서 이 의식 가운데 필수적인 요소가 하오마(haoma)[9]라고 불리는 환각성 음료였다. 이들은 미트라(Mithra), 바유(Vāyu), 토레쉬타르(Thwōreshtar) 등과 같은 신들을 경배했으며 몇몇 신들에게는 역할도 부여했는데 예를 들면 전쟁의 신인 베레트라나(Verethrana)[10], 땅의 신인 스펜타 아르마이티(Spentā Ārmaiti), 불의 신인 아타르(Ātar) 등이 그것이다. 이란인들의 신의 계보 최정상에는 아후라 마즈다(Ahura Mazdā)가 있다. 그는 질서를 세우고 모든 것을 제 위치에 두어 만물을 지배한다는 의미에서 창조주(dātar)이다. 아후라 마즈다의 배우자는 땅의 신으로 알려진 스펜타 아르마이티(Spəntā Ārmaiti)이지만 '아후라의 부인들(Ahurānīs)'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으로 보

6) 본 논문에서는 혼동을 피하기 위해 종교를 지칭하는 용어로는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용어 “조로아스터교(Zoroastrianism)”를, 그 예언자를 지칭하는 용어로는 현대 페르시아어 원음에 가까운 "자르토쉬트(Zartosht)"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7) 아베스타어 *daēva*, 고대 페르시아어 *daiva*, 고대 힌디어 *devá*
8) 아베스타어 *yasna*, 고대 힌디어 *yajñá*
9) 아베스타어 *haoma*, 고대 페르시아어 *hauma*, 고대 힌디어 *sóma*
10) 아베스타어 Verethrana, 중세 페르시아어 Wahrām, 현대 페르시아어 Bahrām

아 여러 배우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두 남성의 신이 아후라 마즈다와 깊은 관련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는 판단의 신인 라쉬누(Rashnu)로서 재판과 맹세를 주관했다. 또 다른 하나는 미트라(Mithra)인데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했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가나 사람들 간의 계약이었다. 각종 무기로 무장한 마차에 탄 전능한 전사로서의 그의 이미지는 계약의 신성함을 강조하는 그의 능력을 반영하고 있다. 전사로서 그는 또 다른 강력한 신인 베레트라나와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었다. 승리의 신인 베레트라나는 "저항을 물리치는"이라는 용어적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적의 저항을 물리치고자 하는 이란 전사들의 이상을 구현시키고 있다(Boyce 1975-82, I. 62-65: Schwartz 671-73). 전사들은 전쟁터에 나갈 때 미트라나 베레트라나 신에게 기원을 했지만 지배자가 합법적 힘을 사용해 통치자로 군림할 때 또 다른 두 힘을 이용했다. 이란인들은 "영광"이라는 의미의 카레나(xarenah)라고 불리는 초인간적인 힘을 믿었는데 그것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오직 합법적인 통치자만이 함께 할 수 있는 불의 존재라고 여겼다(Bailey 1943: 1-51). 이 카레나가 초인간적인 힘인 반면에 전사들의 승리는 아나히타 여신이 내려주는 것이라고 믿었다. 이 아나히타 신은 나중에 샤흐르바누(Shahrbānu)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이슬람 시대까지 동일한 역할을 수행했다. 아테나 여신이나 이쉬타르 여신과 마찬가지로 아나히타는 무기와도 관련된 여신이었다(Schwarz 667-84).

우주는 육지와 대기와 하늘의 3층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육지는 다시 6개의 대륙으로 나뉘어 그 한 가운데에 아르얀 바에자(aryana vaējah)[11], 즉 '아리아 인들의 영역'이 위치해 있었다(Gnoli 1980, 88-90). 그 한 가운데에는 굴대의 역할을 하는 하라 베레자이티(Harā Berezaitī)[12]라고 불리는 우주의 산이 있다. 그 남쪽 평원에 보우루 카샤(Vouru-kasha)라고 불리는 성스러운 바다가 있는데 이 바다 한 가운데에 생명의 나무 가오케레나(Gaokerena)[13]가 자라고 있다. 하늘에는 돌로 된 아치 모양의 하늘(asmān)이 덮혀 있는데

11) 중세 페르시아어 Ērān-Wēz
12) 오늘날 이란의 엘보르즈(Elborz) 산맥
13) 중세 페르시아어 Gōgirn

그 너머에 "무한의 빛(anaghra raochā)"의 영역과 "최상의 존재(vahishta ahu)"와 "노래의 집(garōnmāna)[14]이 있다. 지하에는 "무한의 암흑(anaghra temā)"의 영역이 있다. 모든 육지는 "혼돈의 물"로 둘러싸여 있다. 하라에서 맑은 물이 흘러내려 보우루 카샤로 흘러들고 여기에서 이 세상의 수많은 강이 흐른다. 이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쌓여 "여과장치"라는 의미의 푸이티카(Pūitika)라는 소금 호수를 형성하며 물의 순환은 반복된다(Boyce 1975-82, I, 135-36).

파흘라비어 자료를 근거로 재구성해 보면 우주는 3개 혹은 4개의 시대로 구분되는데 그 각각의 시대는 3,000년간 지속된다. 이러한 사상은 고대 인도의 유가(yuga) 사상이나 그리스의 4대 금속시대 사상과 유사하다. 각 시대의 흐름에 따라 우주의 대변동이 발생하며 각 주기는 그와 같은 대변동과 함께 끝을 맺고 새로운 창조가 반복된다. 이와 같은 주기에 대한 관념이 조로아스터교에서 창조의 신화, 선과 악의 전쟁, 선의 최후 승리, 아후라마즈다의 영원한 왕국 건설이라는 형태로 변형된 것은 물론이다. 1년이라는 주기는 지역마다 다른 다양한 축제로 구분된다. 그중 가장 중요한 축제가 새해를 기념하는 봄의 축제(nourūz)[15]이며 그 직전에 죽은 자들의 영혼(frawashi)이 잠시 현세에 돌아온다(Gignoux 2001, 16-20).

고대 이란인들의 종교적 관습은 베다 문학에서 나타난 것과 유사했던 것으로 보인다. 남성들은 특별한 과정을 거쳐 승려가 될 수 있으며 승려의 직위는 세습되었다. "제주(祭酒)를 바치는 자"를 의미하는 자오타르(zaotar)[16]는 제사장이었으며 그 밑에 다양한 직위의 승려들을 거느렸다. 또 다른 사제 계급은 아타우르반(āthaurvan)[17]인데 원래는 하나의 신이자 동시에 우주의 구성요소인 '성스러운 불(ātar)'을 지키는 임무를 맡았지만 나중에는 여러 성직계급 중의 한 자리를 차지했다. 신들에 대한 경배는 야스나(yasna)를 통한 의식으로 치러진다. 원래는 음식과 하오마(haoma)라고 불리는 환각성의 음료를 바치는

14) 중세 페르시아어 garōdmān
15) 파흘라비어 nōg rōz, 현대 페르시아어 nourūz
16) 고대 인도어 hótar
17) 고대 인도어 átharvan

의식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의식이 신을 영접하는 의식으로 정형화되면서 음식과 음료를 바치는 의식뿐만 아니라 신을 찬미하는 시의 낭송도 포함되었는데 이 시를 마트라(mathra), 시를 낭송하는 사람을 마트란(mathrān)[18]이라고 불렀다. 후에 조로아스터교의 경전이 된 아베스타의 야쉬타(yashta)는 바로 이러한 찬양시의 모음집이다.

영혼, 죽음, 내세에 대한 교리는 매우 복잡했다. 사람은 여러 가지 영혼을 가지고 있다. 생명력을 주는 영혼뿐만 아니라 우르반(urvan)[19]이라는 영혼은 죽음에서 부활해 이승으로 가는 영혼이며, 프라와쉬(frawashi)라는 영혼은 수호 영혼이다. 또한 다에나(daēnā)는 일종의 이중적 성격의 영혼을 말한다(Gignoux 2001, 12-16, 20-30). 사람이 죽으면 브야나(vyānā)[20]라는 영혼이 몸체에서 분리되고 나수(nasu)라고 불리는 '부패의 악마'가 곧 이 영혼을 취해 저승으로 통하는 다리를 넘게 되지만 그 이전 3일 동안 자신의 시신 곁을 맴돌게 된다. 친바트(chinvat)라고 불리는 이 저승으로 통하는 다리에 대해서는 이미 자르토쉬트 자신이 가타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이 저승으로의 위험한 여행에 대해 어떤 종교적 관념이 영향을 주었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조로아스터교에서는 이 다리를 건넌다는 것이 죽은 자의 선행과 악행에 따라 천국에 오르거나 심연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시간을 의미했다.

Ⅲ. 자르토쉬트의 생애

조로아스터교 역사 연구의 중요한 문제점 중의 하나는 자르토쉬트의 시대와 장소를 규정짓는 일이다. 하지만 자르토쉬트가 어느 시대에 어느 장소에서 태어나서 주로 어느 지역에서 활약했는지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은 아직도 분분하다. 다만 최근의 연구들은 그가 이란의 서부지역 출신이라는 종래의 주장에서 벗어나 동부지역 출신이라는 주장에 더욱 무게가 실리게 하고 있다. 한

18) 고대 인도어 mantrín
19) 파흘라비어의 ruwān, 현대 페르시아어 ravān
20) 중세 페르시아어 gyān, 현대 페르시아어 jān

편 그의 생존 연대에 대해서도 기원전 13세기부터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제국의 건국 당시인 기원전 6세기까지 다양한 가설들이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는 기원전 6000년경의 인물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이 또한 과거에는 조로아스터교 전승의 기록에 의거한 기원전 6세기라는 주장이 힘을 얻었지만 베다(Veda)의 후기 언어와 비교한 언어학적 분석에 따라 그의 생존 연대가 기원전 1,000년경이라는 새로운 가설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Boyce 1975-82, I, 190-91: Duchesne-Guillemin 135-38: Gnoli 1980, 159-79).

1. 자르토쉬트의 이름

조로아스터교의 창시자 자르토쉬트는 아베스타에서 동부 이란어 방언으로 자라투쉬트라(Zarathushtra)라고 표기되어 있다(Schlerath, 134). 이것이 고대 페르시아어의 자라트 우쉬트라(zarat-ushtra)로, 중세 페르시아어인 파흘라비어의 자르토쉬트(zartosht)로 변형되었다. 조로아스터(zoroaster)라는 용어는 그리스어 표기가 라틴어를 거쳐 오늘날의 형태로 발전한 것이다.

자르토쉬트의 의미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고대 페르시아어의 표기인 자라트 우쉬트라에서 뒷부분인 우쉬트라가 "낙타"를 의미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문제는 앞부분인 자라트의 해석에 따라 여러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을 자란트(zarant)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보는 주장과 자라트(zarat)로 읽어야 한다는 주장의 두 가지로 크게 구분된다.

베다어 járant, 고대 오세트어 zœrond, 현대 파쉬토어 zorr에서 "늙은, 노쇠한"의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자라트 우쉬트라는 "노쇠한 낙타"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 반면에(Schlerath, 133-135), "노란색"을 의미하는 新아베스타어의 zairi와 같은 어원의 단어로 보아(Werba, 184) "노란 낙타"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Markwart, 7). 또한 아베스타語에서 zarant는 "화, 분노"로 해석되기 때문에 "분노한 낙타"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Mayrhofer, 43-53). 한편 아베스타어에서 zarat를 zarsh(끌다)와 동일한 어원의 단어라고 보고 "낙타를 모는 (사람)"이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Bailey 1953, 40-42), zarat를 "좋아하다"의 의미를 갖는 베다어의 har, 古아베스타어의 zara와 동일한 어원으로 보아 "낙타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다(Mayrhofer, 43-53). 기원전 5세기 중반의 그리스 문헌에서는 조로아스터(Zōroástrēs)가 "흐려지지 않는"이라는 의미의 zōrós와 "별"이라는 의미의 ástra의 합성어로 설명하고 있다(Schmitt, 93-98).

2. 자르토쉬트의 연대

자르토쉬트의 생존 연대에 대해서도 기원전 6,000년에서 기원전 100년까지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다소 지나칠 정도로 몽상적인 기원전 6000년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대부분 로마 및 비잔틴의 역사가들[21]인데 이들은 기원전 5-4세기의 그리스 작가들[22]이 "트로이 전쟁보다 5,000년 전" 혹은 "플라톤보다 6,000년 전"이라고 언급한 것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Jaeger, 132-6). 이러한 주장은 아마도 3,000년의 기간씩 총 12,000년이 반복된다는 조로아스터 교리의 "대-주기"를 그리스 학자나 작가들이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다르메스테터(Darmesteter J.)가 주장하는 기원전 100년이라는 주장은 다분히 의도적인 역사왜곡이다. 즉, 자르토쉬트의 생존연대를 유대교의 구약보다 훨씬 이후로 놓으며 동시에 최소한도 기독교의 발생연대와 비슷한 시점으로 놓아 조로아스터교의 유대교 및 기독교에 대한 영향을 부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러한 다양한 의견에도 불구하고 19세기 말까지는 소위 "전통적인 연대(traditional date)"라고 하는 기원전 6세기의 주장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알렉산더보다 258년 전"이라는 조로아스터교의 전승이다

21) 1세기의 로마 역사가 플리니우스(Gaius Plinius, 23-79)와 플루타르크(Lucius Plutarchus, 46-120), 3세기의 비잔틴 역사가 디오게네스(Diogenes Laertius)와 라크타니우스(Lucius Lactanius, 240-320) 그리고 8세기의 역사가 신켈루스(George Syncellus) 등이 대표적이다.

22) 헤르미푸스(Hemippus of Smyrna), 유독수스(Eudoxus of Cnidus),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 등이다.

(Jackson 1899, 162: Shahbazi 1977, 25-26). 따라서 알렉산더가 페르시아의 수도 페르세폴리스에 나타난 기원전 330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대략 558년이 되기 때문에 자르토쉬트의 생존연대는 기원전 6세기라는 주장이 그나마 믿을만한 주장이었다(Kingsley 245-65).

하지만 19세기 말부터 바르톨로메아(Bartholomea)와 크리스텐센(Christensen)과 같은 학자들이 “전통적인 연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은 자르토쉬트 자신의 글로 알려진 가타(Gāthā)[23]의 고대 아베스타 언어와 리그베다(Rigveda)의 언어인 산스크리트어의 유사성에 주목하고 언어학적 분석을 통해 가타와 리그베다의 언어가 비슷한 시기의 언어이기 때문에 자르토쉬트의 생존연대를 기원전 1,000년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는 리그베다의 언어가 기원전 1800년경부터 형성되었으며 가타에서 길들인 가축들이 언급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자르토쉬트가 기원전 1600년경에 생존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i-1). 헤로도투스보다 앞서 기원전 5세기에 활약했던 리디아 출신의 칸투스(Xanthus of Lydia)는 "크세르크세스보다 600년 전"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크세르크세스가 그리스를 침략한 해인 기원전 480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기원전 1080년이 되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가타의 언어학적 연대와 유사해 진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대략 기원전 1000년경에 생존했다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이 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편 가타에 묘사된 사회 구조나 생활방식을 근거로 자르토쉬트의 연대를 추정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가타는 승려와 유목민/농부로 구성된 2원적 유목/초원 사회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작은 왕국 규모에 불과한 부족 조직체였다. 자르토쉬트가 귀족/전사 계급, 승려 계급, 농부 계급으로 구성된 3원적 조직체의 큰 제국, 다시 말해 아케메네스 제국에서 살았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어서 전통적 연대의 신빙성을 의심케 만들고 있다.

---

23) 아후라마즈다에 대한 찬가를 말하며 총 17곡에 238개의 시, 1300개의 싯귀, 60000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3. 자르토쉬트의 출생지

자르토쉬트의 출신지에 대해서도 이란의 서부라는 주장과 동부라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종래의 지배적인 주장은 자르토쉬트가 이란 서부의 메디아(Medea) 출신이라는 것이었다. 야스나 9장과 7장에 이란 영역(Airyanem Vaējah)의 디트야(Ditya) 강 유역이 자르토쉬트의 고향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야스나 59장 18절에는 조로아스터교의 승려장(zarathushtrotema)이 라가(Ragha)에 거주했다고 말하고 있다. 9-12세기 사이의 조로아스터교 전승 기록은 다른 지역들과 함께 나열되어 있는 이 라가가 이란 서부 지역임을 알려주고 있다. 아베스타 어디에도 메디아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않지만, 분다히쉰 20장32절과 24장15절은 라가가 메데아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아마도 오늘날의 테헤란 인근에 있는 중세의 라이(Rai)와 동일한 지역을 지칭하는 말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베스타에서의 라가는 단지 고원이나 언덕을 의미하는 일반 명사로도 사용되기 때문에(Gershevitch 1964, 36-37) 라가가 꼭 오늘날의 라이를 지칭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한편 이슬람 이후인 12세기 초반의 무슬림 작가 샤흐라스타니(Shahrastānī, 1086-1153)는 자르토쉬트의 아버지가 메디아의 아트로파테네(Atropatene) 출신이며 어머니는 라이 출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명한 종교 학자가 제기한 이 주장은 모두가 자신의 지역을 자르토쉬트의 출신지라고 주장했던 그동안의 주장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Boyce 1975, 2-26: Gronke, 59-60). 또한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지역의 아랍어 자료들은 자르토쉬트의 탄생지가 아제르바이잔이라고 기록하고 있다(Nigosian, 17).

상기의 기록들을 근거로 자르토쉬트가 이란 서부 출신이라는 주장이 지배적이었지만 20세기 후반부터 많은 학자들이 역시 아베스타의 언어학적 분석이나 지명을 분석해 자르토쉬트의 고향이 이란의 동부지역 혹은 중앙아시아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놀리(Gnoli)는 시스탄, 프리(Frye, 8)는 박트리아와 코라스미아(Chorasmia), 클로핀(Khlopin, 107-110)은 오늘날 투르크메니스탄의 테드젠(Tedzen) 델타 지역, 사리아니디(Sarianidi, 54)는 박트리아-마르기아나(Baktria-Margiana), 보이스(Boyce, 1)는 중앙아시아의 스텝 지역이

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종래의 "메디아 출신"이라는 가설은 이제 더 이상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4. 자르토쉬트의 생애

자르토쉬트의 생애에 관한 자료는 주로 조로아스터교의 경전인 아베스타에서 얻을 수밖에 없다. 그 중에서도 자르토쉬트가 직접 집필했다고 알려진 가타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가타에는 자르토쉬트의 개인적 사건을 암시하는 구절들이 들어있다. 예를 들면 당대의 경쟁자들인 승려들이나 귀족들의 방해를 물리친 자르토쉬트의 승리, 어려웠던 선교활동, 자신의 어머니 고향에서 겪었던 혹독한 대접 등이 그것이다. 또한 자신의 딸의 결혼과 같은 가족에 대한 정보도 담고 있다. 가타보다 훨씬 후대에 집필된 소위 "新아베스타(Young Avesta)"에는 자르토쉬트와 악마들(daevas)들과의 씨름 및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라는 아흐리만의 유혹 등이 묘사되어 있어서 구약 및 신약의 내용을 연상시킨다(Yasht 17.19: Vendidad 19).

아베스타의 13번째 장인 스펜타 장(Spenta Nask)에 자르토쉬트의 생애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들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불행하게도 이 부분은 소실되어 전하지 않고 9세기에 집필된 덴카르트(Dēnkard)의 제7권에 이 부분에 대한 요약이 남아있다. 페르시아 민족의 대 서사시 왕서(王書, Shāhnāme)를 비롯해 9-12세기 사이의 작품들 속에 자르토쉬트에 대한 정보들이 들어 있지만 그 대부분이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던 설화적 소재에 의존한 것들이다. 따라서 경전이든 전승이든 한결같이 자르토쉬트의 가족관계에 대해 기계적인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 그의 아버지는 해카다스파(Haechadaspa Spitāma)의 아들 푸루샤스파(Pourushaspa Spitāma)이며 어머니는 두그도바(Dughdova)였다. 그와 그의 아내 흐보비(Hvōvi) 사이에 프레니(Freni), 푸루키스타(Pourucista), 트리티(Triti)라는 이름의 세 딸과 이사트 바스타르(Isat Vastar), 우루바트 나라(Uruvat Nara), 흐바레 키트라(Hvare Cithra)라는 이름의 세 아들이 있었다. 조부 및 부친의 이름에 스피타마라는 이름이 붙은 것으로 보아 자르토쉬트의 가문은 스피타마 가문에 속한 것으로 보인다. 자르토

쉬트가 30세 되던 해에 아후라 마즈다로부터 계시를 받은 후 그의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하녀인 효이망가(Hyoimangha)가 첫 번째 개종자들이 되었다.

야스나 5장과 105장에 따르면 자르토쉬트는 비쉬타스파(Vishtaspa) 왕을 개종시키는 데 성공했는데 가타에서는 이 인물이 실제의 역사적 인물로 등장한다. 설화 상에서 비쉬타스파는 프라샤오쉬트라(Frashaōshtra)와 자마스파(Jamaspa)라는 이름의 두 형제를 신하로 거느렸는데 이들은 각각 자르토쉬트의 장인과 사위로서 자르토쉬트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고 전해진다. 즉, 자르토쉬트의 아내 흐보비는 프라샤오쉬트라의 딸이며 자르토쉬트의 딸인 푸루키스타는 자마스파와 결혼했다. 자르토쉬트와 비쉬타스파 왕 사이에 실질적인 중개 역할을 한 사람은 비쉬타스파의 왕비인 후타오사(Hutaōsa)였다. 왕실과의 이러한 밀접한 관계 이외에도 자르토쉬트는 자신의 부족으로부터도 큰 지원을 받았다. 아베스타에는 자르토쉬트의 죽음에 대한 언급이 없다. 왕서(5장 92절)는 그가 발흐(Balkh)를 침략한 투란(Turan)인들에 의해 제단에서 피살되었다고 전하고 있다.

자르토쉬트가 자신의 선교를 시작했던 그 배경에 대해서는 위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자오타르(zaotar)이자 동시에 마트란(mathrān)이었다. 자르토쉬트는 아후라 마즈다와 특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그는 이 신으로부터 계시의 비전(daēnā)을 받았다. 그의 비전은 가타에서 표현한 대로 전통적 신앙에 급격한 변화를 불러 일으켰다. 아후라 마즈다를 최고신의 위치에 올려놓음과 동시에 모든 이란의 전통적 신들의 특성(Amesha Spentas)을 아후라 마즈다의 속성으로 영속시킴으로써 다신교를 일신교로 바꾸었다.

자르토쉬트 이후 이란 종교의 역사는 재편되기 매우 어려웠다. 이란의 동부 지역에서 그가 선교를 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 통치자였던 비쉬타스파(Vishtāspa)를 개종시켜 자신의 보호자이자 후원자로 만들었다(Jackson, 59; Boyce, 1975-82, I, 11, 279-81). 그 이후의 역사에 대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유일한 사실은 자르토쉬트가 건설한 종교공동체가 그의 사후에도 계속 존속하고 번영했다는 점이다. 아케메네스 제국 치하에서 거대한 이란이 건설되면서 그의 종교는 이란의 서부 지역으로 진출했으며 이 지역에서 동부 지역에서의 원래의 조로아스터교와는 다른 형태로 변형되었다.

Ⅳ. 조로아스터교의 역사

1. 아케메네스 제국 시대

키루스(Cyrus), 다리우스(Darius), 크세르크세스(Xerxes) 등과 같이 아케메네스 제국 초기의 황제들이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이론의 여지는 없다. 그들은 틀림없이 아후라마즈다의 절대적인 지배권을 믿었으며 선신 아후라(ahura)와 악신 다이바(daiva)의 이원론적 존재도 믿었다. 키루스는 그 유명한 '키루스의 실린더'에서 자기 자신을 바빌론 신들의 대리인으로 묘사했지만 아후라마즈다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표현에 그쳤다. 반면에 다리우스나 크세르크세스는 아후라 마즈다에게 열광적인 지지를 보내 큰 대조를 이룬다. 크세르크세스가 악마의 신전인 다이바다나(daivadāna)를 파괴한 것은 조로아스터교에 대한 열광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증거이다. 수백 년 후 역시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 채택했던 사산 왕조도 자신들의 비문에서[24] 오흐르마즈드(Ohrmazd)[25]를 언급하고 있지만 정작 자르토쉬트의 이름은 어디에도 발견할 수 없다(Root, 169-171; Jacobs, 58-59). 아케메네스의 궁정 예술은 최소한도 그것이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영향을 받았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예를 들면 아후라 마즈다의 날개를 단 모습은 아수르(Assur)의 형상과 거의 일치한다. 아케메네스 왕조의 비-이란 종교에 대한 정책은 하나의 관용이었거나 무관심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산 제국 치하에서 종교 문제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던 것과 큰 대조를 이룬다.

아르타크세르크세스 2세(Artaxerxes Ⅱ, 404-359 BC)는 역법을 개혁함으로써 하나의 큰 전환점을 마련했는데, 달 이름을 아나히타 및 미트라 신과 같은 조로아스터교의 신들의 이름으로 대치했다. 아케메네스 시대의 조로아스터교의 특징은 절충주의였다. 그것은 자르토쉬트 당대의 신학적 요소에 새로운 요소들이 혼합된 형태를 띠게 되었는데, 이를테면 전거가 의심스러운 예언자

24) 샤푸르(Shāpūr) 1세의 하지아바드(Ḥajjiābād)의 비문, 샤푸르 2세의 타게 보스탄(Ṭāq-e Bostān) 비문, 나스레(Narseh)의 비샤푸르(Bīshāpūr) 비문 등

25) 아후라 마즈다(Ahura Mazda)의 중세 파흘라비어는 오흐르마즈드(Ohrmazd)였다.

자르토쉬트에 대한 신화들, 가타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 새로운 신들에 대한 숭배, 청결과 오염에 대한 최우선적 관심, 배화사원의 건설, 엄격한 도덕법의 제정, 역사를 이원론적 원리 사이에 반복되는 투쟁으로 바라보는 종말론 그리고 궁극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우주의 혁신(frashō-kereti)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아케메네스 시대의 조로아스터교는 자르토쉬트 당대에 비해 앞에서 언급한 고대 이란 종교의 요소들을 많이 포함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스타는 그 지리적 영역에서나(Gnoli, 1985: 17-30) 언어학적 영역에서나 완전히 이란 동부지역의 요소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2. 그리스 및 파르티아 제국 시대

기원전 330년 다리우스 3세의 죽음으로 끝난 알렉산더의 페르시아 정복 이후 224년 사산 제국의 건국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의 조로아스터교에 대한 우리의 정보는 극히 단편적이다. 비록 아르메니아를 비롯한 중동 전역에 조로아스터교의 존재를 입증할만한 단편적 정보들은 풍부하지만 일관된 역사를 꿰어낼 만한 자료는 되지 못하고 있다. 사산제국 시대의 작가들은 알렉산더를 오직 전설상의 인물이자 아베스타를 파괴하고 선의 종교에 총체적 혼란을 야기한 악마(gizistag)로만 여겼다. 10세기경에 편찬된 덴카르드(Dēnkard)에는 파르티아 제국의 왈라크쉬(Walakhsh, 51-80 재위)[26]가 알렉산더에 의해 소각된 아베스타를 집대성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애매하게 표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산 제국의 작가들은 파르티아 제국을 이란의 전통적 가치의 보호자로 묘사하는 데에 인색한 반면 자신들은 조로아스터교를 비롯한 이란 전통의 복구자로 묘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3세기경에 고위 승려였던 키르데르(Kirdēr)가 성직제도와 종교기구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파르티아 제국 시대로부터 내려온 것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Widengren 1965a, 37-40).

---

26) 그리스어 문헌에서의 볼로가세스 1세(Vologases I)

3. 사산 제국 시대

226년부터 아르다쉬르(Ardashir I, 226-241 재위)에 의해 건설된 사산제국 역시 조로아스터교의 전통을 유지해 나갔지만 아케메네스 시대의 그것과는 상당히 달랐다. 로마 제국은 지중해까지 세력을 펼쳐 메소포타미아의 지배를 놓고 파르티아에 도전해 왔다. 비록 로마 제국은 여러 지역의 종교들을 받아들이거나 관용적인 태도를 취했지만 곧 기독교로 대체될 운명의 로마 황제 숭배는 제국 전체에 강요되었다. 반면에 이란에서는 민족과 지역을 초월한 세계적 종교들이 연이어 나타났다. 로마에서 발흥한 기독교뿐만 아니라 동양에서 일어난 불교의 조류가 이란의 동부지역과 중앙아시아를 휩쓸었다. 유대교 공동체가 메소포타미아와 이란에 건설되었으며 곧이어 마니교가 무대에 등장했다. 하지만 조로아스터교는 여전히 메소포타미아에서든 이란고원에서든 이란 민족들 대다수가 믿는 종교였다. 파르티아 제국의 아르삭 왕조(Arsacid)는 아케메네스 시대와 마찬가지로 종교적 관용의 전통을 유지했지만 사산 제국은 그 전통을 깨뜨렸다. 또한 아케메네스나 아르삭 왕조가 조로아스터교를 지원하고 확대시킨 것은 국가의 이익 때문이었지만 사산 왕조는 '국가와 교회의 일치'라는 종교정책의 원칙을 일찍부터 발전시켰으며 그것은 외래 종교나 조로아스터교의 이단적 분파들에 대해 비관용적 태도를 보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산 제국 시대는 정치적으로 비교적 안정된 시기였으며 이 기간 중에 조로아스터교도 비약적인 번영을 누렸다. 비록 이단 종교의 발생이나 다른 종교의 도전도 있었지만 조로아스터교 교회의 권위는 처음부터 경쟁 대상이 될 수 없었다. 배화 사원이 페르시아 전역에 급격히 늘어났으며 그에 따른 조로아스터교 승려들의 수도 현저하게 증가되었다. 역법이 개혁되었으며 1년 주기의 종교축제에 대한 표준화도 이루어졌다. 조로아스터교는 또한 엄격한 사회계급(pēshag)의 분화에도 큰 몫을 담당했다. 승려 및 귀족들이 엘리트 계급으로서 피지배 계급인 농부나 장인들 위에 군림했다. 엘리트들을 위해 생산 활동을 담당한 피지배 계급의 부담은 너무도 컸으며 그러한 어려움은 마즈닥교(Mazdakism) 운동과 같은 종교운동이자 사회개혁 운동으로 표출되기도 했다.

아르다쉬르 1세는 조로아스터교의 교리와 종교의식의 획일화를 시도했다. 그의 이러한 정책에 큰 힘을 실어준 인물은 헤르베드(hērbed)[27] 직급의 조로아스터교 승려 탄사르(Tansar)였다. 탄사르 자신이 쓴 서간문 "탄사르書(Nāma-ye Tansar)"[28]와 덴카르트(Dēnkard)에서 추출된 자료를 보면 탄사르는 두 가지 중요한 정책의 책임을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중 하나는 그동안 이단으로 규정되어 소외되었던 권위 있는 경전들을 복원시켜 새로운 종교규범을 만들어 내는 일이었는데, 이 새로운 규범은 모든 종교적 해석을 자신의 조정 아래에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또 다른 하나는 종교의식의 획일화를 강요하며 배화사원의 확대를 도모하는 일이었다. 또한 개정된 조로아스터교 교리에 따른 성상파괴운동(iconoclasm)도 일어났다. 이로 인해 예배 행위 중의 우상의 사용은 금지되었지만 예술에서는 신의 이미지를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것이 허용되었다. 따라서 성상의 사용을 대신한 것이 성스러운 불 제단의 설치였다(Ibn Isfandiyār 1968, 5-7).

탄사르에 이어 조로아스터교의 권위는 키르데르(Kirdēr)라는 이름의 승려에게 전이되었는데 그의 오랜 경력은 이미 아르다쉬르 시대에 시작되어 바흐람 2세(Bahrām II, 276-93 재위)의 통치 시기까지 계속되었다. 샤푸르 1세(Shaāpūr I, 241-272 재위) 시대에 그는 많은 배화 제단을 세웠지만 아르다쉬르나 탄사르가 실시했던 엄격한 종교정책을 완화시켜 자유로운 종교생활을 허용했을 뿐 아니라 본인도 마니(Māni)가 설교한 영지(靈知)주의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샤푸르가 죽자 키르데르의 영향력은 더욱 커져 종교 문제에 관한 한 모든 문제에서 최고의 권위를 누렸다. 사실 그의 영향력은 황제의 영향력과 거의 수평을 이룰 정도여서 여러 장소에 자신의 비문을 남겼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샤푸르 1세의 비문 밑에 남긴 소위 "조로아스터교의 카바(Ka'ba-ye Zartosht)"의 비문이다(Gignoux, 1209-11). 이 비문의 첫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당시의 강력한 관료주의가 이란 영토 내에서든 비-이란 영

27) 아케메네스 제국 시대에 헤르베드는 최하위 계급의 승려를 지칭했지만 사산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는 전통적인 계급조직이 붕괴되고 헤르베드 역시 높은 지위를 누릴 수 있었다.

28) 이 책의 파흘라비어 원본은 소실되었지만 13세기에 이븐 이스판디야르(Ibn Isfandiyār)가 아랍어로부터의 페르시아어로 번역본이 전해지고 있다.

토 내에서든 각 지역의 배화사원들을 설립하고 유지할 수 있는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이단들이 근절되고 우상들은 파괴되었으며 유대교, 기독교(특히 경교), 마니교, 불교, 브라흐만교와 같은 여타 종교들도 공격을 받았다. 마니교의 자료에 따르면 키르데르가 바흐람 1세의 통치시기에 마니를 처형하도록 획책했다고 전해진다(Boyce 1975, 43-48: Widengren 1965b, 37-42). 이 때문에 마니교는 고대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는 번영해 나갔지만 정작 이란 중심지에서는 미미한 존재로 전락했다. 이미 파르티아 시대에 혹은 그 이전에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조로아스터교와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 논쟁의 대상은 주르바니즘(Zurvanism)이었다. 이 이론은 "시간의 신" 주르반(Zurvān)"을 최고의 신으로 간주하고 그의 쌍둥이 아들인 오흐르마즈드와 아흐리만(Ahriman)이 우주의 지배권을 놓고 경쟁한다는 것이다(Zaehner 1955, 60-61, 245). 이러한 주장은 오흐르마즈드와 아흐리만을 창조되지 않은 태초의 신으로 보는 이원론에 배치되는 것이다. 비록 나중에 극단적인 이원론이 더욱 우세하게 되었지만 주르바니즘이 어느 정도 이단으로 취급받았는지는 확실치 않다. 아마도 키르데르 자신도 주르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사산 제국 통치자들 사이에서도 이것을 정통 교리로 받아들였다는 증거는 많이 있다(Boyce 1979, 112-13, 118-23). 샤푸르 2세(Shāpūr II, 309-379 재위)가 즉위하자마자 진리를 정립하기 위해 각 종교 운동의 대표자들이 회합했다. 탄사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왕으로 하여금 정통 종교를 확인하고 이단을 근절시키려는 의도로 기획된 행사였다. 이를 통해 주르바니즘이 정통성을 획득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이 남는다. 어쨌든 샤푸르 2세의 통치 기간 중에 아베스타 경전이 더욱 발전을 이루었고 여러 장(nask)으로 된 종교규범도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를 완성한 것은 호스로우1세(Khosrou I, 531-79 재위) 시대이다.

서쪽에서 로마 및 비잔틴 제국과의 전쟁 그리고 북동쪽에서 유목 민족들과의 충돌이 제국의 안정에 끊임없는 위협이 되는 한편 내부적으로도 종교-사회 운동이 그 존재를 확실하게 드러냄으로써 카바드1세(Kavād I, 488-531 재위) 통치 시기부터 사회적 불안의 징조들이 뚜렷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종교 운동은 마즈닥 밤다단(Mazdak Bāmdādān)이라는 인물에 의해 주도되었

는데 마니교의 운동을 대치한 것이었다. 소위 마즈닥교(Mazdakism)라고 불리는 이 종교는 조로아스터교와 마니교에 뿌리를 둔 금욕주의를 절충한 종교였는데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평등과 재산의 균등 분배를 주장하며 제도권의 종교에 도전해 왔다. 그와 같은 주장들은 주로 서민 계급의 큰 호응을 받았지만 귀족들 사이에서도 지지를 얻었다. 카바드 1세 자신도 마즈닥교의 신앙을 받아들였는데 그의 배교 행위 때문에 승려들과 귀족들의 반발을 사 왕위에서 물러났다가 다시 즉위하는 일도 발생했다. 카바드 1세는 마즈닥교를 멀리한 후 528년 한 연회에서 자신의 아들 호스로우 1세를 시켜 마즈닥과 그의 추종자들을 처형시켰다(Nöldeke, 455-67).

호스로우 1세의 통치 시기는 이슬람 시대에도 회자될 정도로 사산 제국의 문화와 정치력이 크게 융성하던 시기였다. 이 시기는 개혁의 시기라기보다는 강화와 유지의 시기였다. 아베스타 경전이 그 주해서 잔드(Zand)와 함께 마지막 편찬이 이루어졌고 그 밖의 수많은 종교문학 작품들이 양산되었다. 9세기의 광범위한 파흘라비 서적들은 바로 이 사산제국 후기의 방대한 문학의 사본이거나 보다 엄밀한 의미에서 요약본이었다. 호스로우 사후 내부의 권력투쟁과 외적의 침략은 중앙정부의 힘을 급격히 약화시켰다. 하지만 아라비아에서 발흥한 신흥 종교 이슬람이 조로아스터교와 제국에 엄청난 타격을 가해올지 그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다.

조로아스터교는 비록 오늘날까지도 그럭저럭 유지해 오고 있지만 651년에 사산 제국이 멸망한 후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타격을 받았다. 사산 제국에 대한 군사적 정복은 빠르게 진행되었지만 종교적 정복은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되었다. 이란에서 이슬람이 조로아스터교보다 우세를 점한 원인은 복잡하다. 조로아스터교의 존속을 위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국가와 종교의 일치라는 사산제국의 신학적 이론이었지만 그 국가가 제거되면서 그 정치적 경제적 지원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의 종말론적 구도가 그 위치를 상실한 것이다. 마즈닥의 반란에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던 사산 사회의 억압받던 하층 계급에게 세계적 평등을 약속하는 이슬람은 보다 낳은 생활을 위한 정신적 물질적 희망을 안겨주었다. 뿐만 아니라 이슬람 공동체가 비록 제2 계급이기는 하지만 조로아스터교 신자들을 "경전의 백성(ahl al-kitāb)"으로 받아

들인 것 역시 자신의 신앙을 버리고 발전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에게 명백한 동기를 부여해 주었다. 어떤 면에서 조로아스터교는 오직 승려들만이 행할 수 있는 복잡한 의식과 고대의 신들이나 신화들과 결부된 이원론적 교리를 가진 낙후된 종교 체계였다. 반면에 이슬람은 단순한 일신론적 교리를 표방함으로써 조로아스터교가 갖는 구조적인 승려제도의 필요성을 없애 주었다. 더욱이 이슬람은 조로아스터교와 공동의 핵심 교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조로아스터교에서 강조하는 정의로운 자들에게는 더 할 나위 없는 최후의 심판일과 그에 이어지는 영원한 세계의 믿음 때문에, 이슬람은 조로아스터교 신자들에게 익숙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준 것이다. 한편 이란에서 굳건히 자리 잡은 시아 이슬람은 미래의 구원자, 즉 "숨은 이맘"의 개념을 갖게 되고 성인숭배를 받아들였으며 성직제도도 발전시키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이 조로아스터교로부터 차용해 온 것이다. 이슬람법은 또한 조로아스터교의 이상들을 대치할 수 있는 개인과 사회를 위한 보다 포괄적인 도덕체계를 제시해 주었다.

아랍-이슬람 지배 초기에 조로아스터교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부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 사회에서 활발한 활동은 계속 유지되었다. 후기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9세기와 10세기 초는 신앙의 보존을 위한 중추적 시기가 되었다. 왜냐하면 그 시기에 위에서 언급한 종교 문학이 엄청나게 양산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지적, 학문적 활동이 조로아스터교의 부활을 위한 희망에서인지 아니면 절박한 위기의식에서 비롯되었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그것들은 조로아스터교의 기록된 증거들을 보존하려는 백과사전들이요, 윤리와 종교의식에 대한 논문들이요, 신학적 책자들이었다.

Ⅴ. 중앙아시아 및 중국의 조로아스터교

1. 소그드 민족과 조로아스터교

아시아를 중심으로 동서 양쪽에 찬란한 고대문명을 이룩했던 페르시아와

중국은 실크로드라는 통로가 마련되면서 일찍부터 문화교류를 시작했으며 그 매개 역할은 실질적으로 실크로드의 주인으로 활약했던 이란계의 소그드(Sogd)족이 담당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근거지인 소그디아나(Sogdiana)를 중심으로 타림 분지와 중국 본토에 진출해 한편으로는 페르시아 문화와 페르시아에서 융성했던 종교들을 중국에 소개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문화를 자신들의 것으로 흡수했다. 이 때문에 중국으로 진출한 소그드 이주민들의 문화는 오히려 소그디아나 본토의 문화보다 더 풍부했다(i-3). 그들의 정력적인 활동과 교류는 우리에게 종교, 문화, 예술에 대한 풍부한 연구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소그드 족에 대한 정보는 중국 문헌 뿐 아니라 페르시아 및 그리스 자료에도 나타나고 있다. 그리스 문헌에는 소그드, 아케메네스 페르시아의 비문에는 수구다(Sughuda), 중국 문헌에서는 속특(粟特 Sute)으로 표기되어 있다. 우리들에게 풍부한 자료를 남겨주고 있는 소그드 어는 동부 이란어에 속해 중세의 서부 이란어였던 파흘라비 어와 친족관계에 있었다. 소그드 족의 기원을 알 수 있는 명확한 역사적 근거는 없지만 설화 및 러시아 고고학자들의 발굴을 통해 사마르칸트의 아프라스얍(Afrasyab)이 2,500년 이상 소그드인들의 근거지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따라서 그리스인들이 소그디아나(Sogdiana)라고 불렀던 그들의 고향은 오늘날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 사이의 비옥한 자라프샨(Zarafshan) 계곡에 위치하고 있었다.

아베스타와 아케메네스 페르시아의 비문은 소그드족과 소그디아나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을 담고 있다. 다리우스(Darius, 522-486 BC)의 그 유명한 비히스툰(Bihistun) 비문은 소그디아나를 제국의 23개 속주(satrap) 가운데 하나로 기록하고 있다(Dresdeen 1983, 1216). 당시 소그디아나는 유리(瑠璃)와 홍옥수(紅玉髓)의 산지로 유명해 다리우스의 겨울궁전인 수사(Susa)를 장식하는데 요긴하게 사용되었다고 한다. 아베스타는 소그디아나가 마르가(Marga)[29]와 코라스미아(Khorasmia)[30] 사이에 위치한 지역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한편 알렉산더의 전기를 기록한 그리스 역사가 플루타르크(Plutarch)는 알렉

29) 중세 이후에는 마르브(Marv)
30) 중세 이후에는 하라즘(Khwarazm)

산더가 동방원정을 통해 소그디아나를 점령한 후 소그디아나의 영주 옥스야르테스(Oxyartes)의 딸 록산(Roxane)을 아내로 맞이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소그드 족은 이후 파르티아, 사산, 박트리아, 돌궐, 당나라 등 수많은 제국에 복속되며 역사상 한 번도 큰 나라를 건설하지 못했지만 기원전 6세기경부터 10세기까지 약 1,500년간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실크로드를 무대로 활발한 무역활동을 벌였다. 특히 그들이 가장 정력적으로 활동한 시기는 5~8세기 사이로서 이 기간 동안 중앙아시아 내륙의 실크로드는 그들의 '무역망'이나 다름없었다. 당시의 소그드, 중국, 아랍, 비잔틴, 아르메니아 사료들은 한 결 같이 소그드 족이 내륙아시아의 가장 큰 무역상들이었다고 묘사하고 있다. 그들은 향료, 은 세공품, 비단 등 다양한 무역품들을 취급햇으며 심지어는 노예무역에까지 관심을 보였다. 그리스어 문헌은 그들의 무역 사절단이 비잔틴 제국 궁전까지 방문했음을 알려주고 있으며 몇몇 카라반 대상들의 낙서는 그들이 인도까지 진출했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또한 중앙아시아 투르크 계통의 언어에 포함되어 있는 소그드 언어의 잔재는 그들의 문화가 투르크 족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 증언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주요 시장은 항상 중국이었다. 그들의 무역망 중 중국 무역망이 가장 잘 조직되어 있었으며 이 때문에 소그드 족에 대한 자료들도 중국 문헌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고 있다.

중국 측 사료에 의하면 중국에 이주한 소그드 족은 소위 '소무구성(昭武九姓)'이라고 하는 9개의 성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소무'는 보석이라는 의미의 소그드어 자묵(jamūk)의 중국어 전사로 보인다(Vaissire, 216). 소무구성은 康(Kang), 安(An), 石(Shih), 曺(Tsao), 何(Ho), 米(Mi), 史(Shih), 賀(Ho), 羅(Lo)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의 성은 소그디아나의 도시 이름과 관련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학자 채홍생(蔡鴻生)은 이 가운데 安은 부하라(Bukhara), 曺는 오늘날 자라프샨 계곡의 북부에 위치했던 카부단(Kabudhan), 何는 사마르칸트와 부하라 사이에 위치한 쿠샤니야(Kushaniyah), 康은 사마르칸드(Samarkand), 米는 오늘날의 판지켄트에 위치한 마이무르그(Maimurgh), 史는 오늘날의 샤흐리사브즈(Shahrisabz)에 해당하는 케쉬(Kesh), 石은 오늘날의 타쉬켄트(Tashkent)에 해당하는 차취

(Chach)를 지칭한다고 주장한다(Cai Hongsheng, 2-3). 한편 일본 학자 요시다 유타카(吉田豊)는 소그드족 이름의 상당수가 조로아스터교의 신들과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리스트를 제시하고 있다(Yutaka, 35-67)

2. 중국의 조로아스터교와 소그드 민족

10세기 페르시아 계의 사만 왕조(Samanid)가 오랜 암흑기를 거친 후 소그디아나 지역을 페르시아-이슬람 문화의 중심지로 만들기 전까지 그곳은 결코 어떤 한 종교의 중심지가 되지는 않았다. 지정학적으로 그 지역은 동서 문명의 접합지였기 때문에 큰 종교의 중심지에서 항상 소외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곳은 중개지였고 통로였으며 그 무엇이든지 그저 지나가는 장소일 뿐이었다. 소그드 문화의 뿌리는 페르시아 문화에 두고 있다. 바빌로니아에서 발생한 마니교, 소아시아에서 파문당한 네스토리안 기독교(중국에서는 景教), 인도에서 뻗어 나온 불교가 모두 소그디아나에 전파되었지만 소그디아나의 공식 종교는 언제나 조로아스터교였다(Hansen, 284). 조로아스터교의 오랜 발전기간 동안 그 신앙은 소그디아나의 법, 의식, 건축, 관습 등 일상생활 전반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조로아스터교 신자들이 빛과 광명의 상징으로 불을 숭배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조로아스터교는 흔히 배화교(拜火教, baihuojiao)라고 불리었지만, 하늘의 신을 숭배한다는 의미에서 신(礻)과 하늘(天)이 합쳐져 만들어진 천교(祆教, xianjiao)가 공식적인 용어로 사용되었다. 간혹 두 가지 의미를 모두 지닌 화천교(火祆教, huoxianjiao)라는 용어도 사용되었다. 오늘날 조로아스터의 중국어 음역은 소라아사덕(Suoluoyaside 琐羅亞斯德)이다. 천교(祆教)는 비슷한 시기에 중국에 들어온 네스토리안 기독교(景教) 및 마니교(明教)와 함께 삼이교(三夷教)의 하나로 꼽혔다(i-4).

조로아스터교가 언제부터 중국에 전파되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고고학적 발굴은 이미 기원전 6세기경의 주(周)나라 시대에 중국 서부지역까지 조로아스터교가 진출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 빅토르 마이어(Victor Mair)는 기원전 8세기 서주(西周)의 궁전에 조로아스터교 승려가 봉직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Mair, 27-47) 그 전거가 의심스럽다. 일반적으로 기원전 2세기에 한무제가 장건을 서역의 이란계 국가인 월지(月支 혹은 月氏)에 파견하면서 서역의 문물이 중국에 알려지고 그 이후에 조로아스터교 문화가 중국에 소개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가 멸망하고 남북조 시대에 들어와 북제(北齊)는 6세기 후반에 페르시아에서 온 사신들을 위해 홍로사(鴻臚寺, honglusi)라는 조로아스터교 사원을 궁정에 마련해 주었다(i-4).

하지만 조로아스터교가 본격적으로 중국으로 진출해 공식적인 외래종교로 인정받은 것은 당나라 시대이다. 당시 당나라의 수도 장안의 국제도시로서의 분위기 속에 조로아스터교도 함께 편승했을 뿐 아니라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 채택했던 사산 페르시아와 당나라 간의 긴밀한 외교관계도 조로아스터교 문화의 중국 진출에 일조했다. 당태종의 치하였던 621년에 장안에 최초로 조로아스터교 사원이 건립되었다. 또한 당태종의 뒤를 이어 즉위한 고종이 사산조 페르시아 제국의 마지막 황제 야즈드게르드 3세(Yazdgerd III, 632-651)의 딸을 왕비로 맞이하면서 중국 황실에서의 조로아스터교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대되었다.

당대의 역사를 기록한 구당서와 신당서에는 사산 페르시아 제국의 멸망과 관련한 재미있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651년 아랍 군에 의해 사산 페르시아가 멸망한 후 야즈드게르드 3세의 아들 피루즈(Fīrūz, 중국 명 卑路斯)와 수많은 페르시아 귀족들이 당에 망명했다. 구당서에 의하면 피루즈는 661년 당고종에게 복수를 위한 군대의 지원을 요청했다고 한다. 당고종은 오늘날 아프가니스탄의 자란즈(Zaranj) 지역에 파사도독부(波斯都督府), 즉 페르시아도독부를 설치하고 피루즈를 이 지역의 도독으로 임명했다. 670-674년 사이에 피루즈는 당의 수도 장안으로 돌아와 우무위장군(右武衛將軍)에 임명되었다. 678년에 피루즈는 이부시랑(吏部侍郎)에 임명되어 당의 궁전에서 머물게 되었다. 곧이어 당의 조정은 배행검(裴行儉) 장군의 군대를 대동시켜 페르시아로 진격하게 했지만 그의 군대는 오늘날 키르기스스탄의 토크목(Tokmok)에 해당하는 수얍(Suyab, 碎葉)까지 진출했다가 회군하고 말았다. 피루즈는 수천 명의 추종자들을 데리고 토화라(吐火羅), 즉 토카리스탄 지역에서 20년 이상 거주하게 되었다. 708년 피루즈는 다시 당의 조정에 들어가 좌위위장군(左威

衛將軍)에 봉해졌다.[31] 피루즈는 그 직후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피루즈의 생애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들은 구당서와 신당서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의 아들 나르시에(Narsieh, 중국명 泥涅师)의 일기를 근거로 삼았다. 나르시에는 당나라 공주와 결혼했으며 그 후손들은 당나라 황실의 성씨인 이(李)를 성으로 채택했다고 전해진다.

이상의 사실로 알 수 있는 것은 사산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귀족층의 상당수가 중국으로 망명해 생활했다는 점이다. 그들은 대부분 사산 페르시아의 국교였던 조로아스터교를 믿었을 것이며 이 때문에 역시 조로아스터교 문화도 큰 흐름으로 중국에 유입되었을 것은 당연한 일이다. 중종(中宗)을 섭정한 측천무후도 조로아스터교에 큰 호의를 보여 그녀의 지원으로 장안에는 대운사(大雲寺)라고 하는 큰 사원이 건립되었다.

당나라 시대에는 또한 사푸(薩甫, safu) 혹은 사바오(薩寶 sabao)라고 불리는 관리가 조로아스터교 신자들 중에서 임명되어 조로아스터교 교구를 관리하는 임무를 맡았다. 소그드어로 사르타포우(sartapou)라고 부르던 이 용어는 원래 소그드 대상의 우두머리를 지칭하던 말이었지만 관직명으로 정착한 것이다. 조로아스터교의 중앙 관청은 사바오푸(薩寶府, sabaofu)라고 불리었다. 개봉(開封)과 진강(鎭江) 등지에도 조로아스터교 사원이 존재했었다.

당나라의 국제문화의 분위기 속에서 번영을 누리던 중국의 조로아스터교는 755-756년 소그드 출신으로 알려진 안록산과 안사의 난 이후 그 활동이 크게 위축되었으며 이밀(李密)이 787년 재상으로 임명되면서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특히 당 무종에 의한 회창 연간(842-845)의 불교탄압 때 조로아스터교 또한 외래종교라는 이유로 극심한 박해를 받다가 비록 송대까지 몇몇 교구가 남아 있었지만 얼마 지탱하지 못하고 조로아스터교는 중국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중국 내에서의 조로아스터교 흔적은 주로 초상화 및 장례석의 부조와 같은 미술 분야에서 발견된다. 몇몇 조로아스터교 초상들은 소그디아나 본토로부터

31) 신당서에 따르면 피루즈가 아니라 그의 아들 나르시에(Narsieh)가 679년 배행검을 대동하고 페르시아로 진격했다가 토화라에 머물다가 좌위위장군에 봉해진 것으로 되어 있다..

중국에 직접 전달되었지만 대부분은 소그드 이주민들에 의해 직접 작성되었다. 북제(北齊, 420-589)의 조중달(曹仲達 Cao Zhongda)을 비롯한 중국에서 활약한 많은 소그드 미술가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역대명화기(歷代名畵記)의 저자 장언원(張彦遠)은 탱화 화가인 조중달의 그림양식을 "조의출수(曹衣出水)"라고 표현했는데 마치 그림 속의 인물이 물에서 바로 나온 사람처럼 옷이 몸에 착 달라붙은 듯 그린다고 해서 붙인 용어이다(i-3). 장언원은 조중달의 이러한 회화 기법을 '조가양(曺家樣)'이라고 명명하고 오도현(吳道玄)의 '오가양'(吳家樣)과 더불어 회화의 양대 산맥을 이루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중국 청주(靑州 Qingzhou)의 융흥사(隆興寺)에 있는 불상들이 이러한 기법으로 만들어진 불상이어서 최근 학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조중달은 중앙아시아의 자라프샨 계곡 남부에 위치한 도시국가 조국(曹國) 출신으로서 소그디아나의 중심부인 사마르칸트로부터 남쪽으로 약 100킬로미터 덜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다. 따라서 조중달의 회화 기법은 조로아스터교 문화에 큰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실제로 소그디아나의 판지켄트(Panjikent)나 발라레케 테페 (Balaleke Tepe) 지역에서 발견된 고분 벽화의 인물들은 '조가양'과 비슷한 양식으로 그려져 있다. 그 외에도 북조의 조소와 투루판(Turfan, 吐魯蕃) 고창(高昌)의 '정광불수기(定光佛授記)' 등의 벽화는 조중달의 예술기법과 깊은 관계가 있다(Wu Hung, 68-72). 중국 사료에 따르면 조중달이 활약했던 북제에서는 서역풍(西域風)이 큰 인기를 끌었으며 북제의 왕 후주(後主, 565-577)는 전통적인 궁중 의식에 조로아스터교의 의식을 포함시켰다고 한다. 오늘날 조중달의 작품은 전해진 것이 없다. 하지만 소그드 미술에 근거한 그의 회화기법을 연상할 수 있는 것이 사원과 무덤에 남아있다. 전자는 판지켄트 사원의 벽화가 대표하며 후자는 아프라스얍 고분 벽화가 대표하고 있다. 이러한 조로아스터교 미술이 중앙아시아를 지나 중국까지 전파되었음을 역사 문헌이나 고고학 발굴이 증명해주고 있다.

소그드 족 정착지의 유적 발굴에 따르면 어느 소그드 사회나 조로아스터교 신을 모시는 사원이 건설되어 중교생활의 중심지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주도경(沙州圖經)에 따르면 둔황 석굴 중 20개는 조로아스터교와 관련된

석굴이다. 중국학자 강백근(姜伯勤)은 둔황에서 발굴된 종이 위에 그려진 여신은 조로아스터교 여신임을 밝혀냈다(Jiang Boqin, 72-74). 둔황에서 발견된 문서들은 약 10세기경까지 둔황 동편에 조로아스터교 사원이 있었으며 매년 조로아스터교의 신들에게 바쳐지는 희생제 의식에 중국 지방 정부가 물질적 지원을 해 주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지방정부의 군사 문서에는 '30 장의 종이를 희사'했다는 기록이 자주 보이는데 이를 근거로 장백근은 조로아스터교 여신들의 그림은 10세기경의 것으로 조로아스터교 사원이 소장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행히도 또 다른 조로아스터교 그림들이 신장 지방의 화전(和田) 북동 지역에 있는 단단 우이룩(Dandan Uiluq)에서 발견되었다. 마르쿠스 모드(Markus Mode)는 1992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나무판 위에 그려진 이 그림들은 불교가 아니라 조로아스터교를 내용으로 하는 소그드 풍의 그림이며 그 속에 묘사된 삼신(三神)은 조로아스터교 최고의 신인 아후라마즈다(Ahura Mazda), 풍요의 여신인 나나(Nana 혹은 Ishtar) 그리고 공기의 신인 웨쉬파르카르(Weshparkar)라고 주장했다.

소그드 족 정착지의 중심부에 조로아스터교 사원이 건설되었다. 이 사원에서 거행된 희생제 의식에 대한 기록을 보면 조로아스터교 사원은 동시에 음악과 오락의 장으로 사용되기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그드 이주민들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그들의 예술에 영향을 받아 모방하기 시작했다.

중국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소그드 예술은 장례 미술이다. 조로아스터교의 장례문화는 중국의 장례문화와 크게 달랐다. 조로아스터교 경전 중의 하나인 벤디다드(Vendidad)와 그 밖의 문헌, 그리고 러시아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따르면 조로아스터교 신자들은 죽은 자의 시신을 야외에 마련된 다크마(dakhma)라고 불리는 단 위에 놓아둔다. 야생의 짐승이나 새들이 시신의 살을 갉아 먹고 뼈만 남게 되면 그 뼈를 모아 항아리에 넣어 매장을 한다.

최근에 러시아 고고학자들이 소그디아나에서 발굴된 항아리의 부조들을 분석해 관심을 끌었다. 비슷한 종류의 항아리들이 신장 지역에서도 발굴되었다. 하지만 신장의 항아리 그림들은 소그디아나 본토의 것들보다 단순하게 그려

져 있다. 중국 본토에도 많은 소그드 족이 거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항아리들은 발굴되지 않고 있다. 그 대신에 분명히 소그드 특성과 조로아스터교 이미지를 담고 있는 몇몇 지하석실들이 발굴되었다. 지금까지 중국 중원에서 발굴된 소그드 석실들은 다음과 같다.

안양(安陽)에서 발굴된 석실들로 몇 개의 군으로 나뉘어 발굴되었다.

중국 북부 지역에서 발굴된 석실들로 현재 일본의 미호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1999년 7월 산서성 태원(太原)에서 발견된 석실로 그 주인이 592년에 사망한 '유홍'이라는 소그드 족이기 때문에 유홍의 석실이라고 불린다.

2000년 7월 역시 산서성의 서안(西安) 북부 외곽에서 발견된 석실로 그 주인이 579년 사망한 안씨 성을 가진 소그드 족이었기 때문에 안가(安家)의 석실이라고 불린다.

지금까지 열거한 석실들의 시대가 대부분 남북조 시대(420-589)에 집중되어 있어서 소그드 족이 꽤 오래 전부터 그 지역에 이주해 살아왔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이미 지하 석실을 만들어 매장하는 중국식 장례문화를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소그드 석실들의 양식과 당시에 중원에서 유행하던 한나라 시대부터의 석실 양식에는 차이점이 발견된다. 소그드 무덤에는 관이 없으며 단지 석실만 있다. 예를 들면 안가의 뼈들은 석실의 통로에 불에 탄 채 발견되었다. 무덤 안에는 관이 없고 단지 석실만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장례 양식은 중국 전통의 것도 아니요, 소그디아나 본토의 것도 아니다. 아마도 중국에 이주한 소그드 족이 자신들의 원래 장례양식에 중국식 장례양식을 혼합해서 만든 것으로 보인다.

석실을 이용한 장례 양식은 항아리를 이용한 양식보다 훨씬 더 많은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길이 2.28미터, 폭 1.03미터, 높이 1.17미터의 안가 석실은 12개의 판에 인물상과 동물상이 부조되어 있는데 그 대부분이 중국식 기법의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부조의 내용은 조로아스터교를 기조로 하고 있다. 예를 들면 파담(padam)이라고 불리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불을 피우는 조로아스터교 승려의 모습, 죽은 자의 영혼이 내세로 통하는 친바트(Chinvat)라고 불리는 다리를 건너는 모습, 제단 앞의 개 등이 그것이다. 조

로아스터교에서 개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친바트 다리를 지키는 것도 두 마리의 개이다. 그래서 조로아스터교의 예술에서는 일반적인 개의 신, 날개 달린 개의 신, 개의 머리와 새의 몸통을 한 센무르(Senmur) 신 등 다양한 모티브로 표현되고 있다.

소그드 족이 처음 중국 땅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그들 자신들의 정착촌을 건설하고 살았다. 남북조 시대 말기와 수-당 시대에 들어와 소그드 이주민들이 늘어나자 중국 조정은 정착민들을 통제하기 위해 사바오(薩寶 sabao)라고 불리는 관리를 임명했으며 나중에 이 정착촌은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발전했다. 이러한 발전과정을 거치는 사이에 소그드 이주민들은 중국 관습을 받아들였으며 불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많아 상당수의 조로아스터교 사원이 폐쇄되었다. 동시에 대도시에서는 조로아스터교 양식의 장례를 치르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소그드 이주민들은 중국식 장례를 따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들의 장례문화 속에는 여전히 조로아스터교 요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예를 들면 석실에 새겨진 부조에는 조로아스터교 신들의 모습, 소그드 음악과 춤을 나타내는 연회 장면, 장례식에서 곡을 하는 장면들처럼 소그디아나 본토의 양식과 유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 이외에도 사냥, 연회, 축제의 모습들도 그려져 있다.

Ⅵ. 결론

주로 무역을 목적으로 한 것이지만 중국에 소그드인들이 정착하면서 조로아스터교의 문화도 유입되었다. 그들은 중국식 성을 따르기 시작했으며 곧이어 군대의 요직에도 등용되었다. 그들은 또한 이주민들을 통제하고 중국 내에서 삼이교(三異敎)라고 불리었던 조로아스터교, 마니교, 경교(네스토리안 기독교)의 사원들을 관리하는 직위에도 등용되었다. 나중에는 사산 페르시아 제국(224-651 A.D.)이 아랍에 의해 멸망한 후 당나라로 망명한 페르시아 출신의 귀족들에게 주로 이러한 직위가 주어지기도 했다.

수나라(581-618 A.D.) 시대의 중국 기록에 따르면 605년 수나라 황제는 "서역의 무늬"의 비단 직조로 유명한 사천(四川, Sichuan)성의 몇몇 직조 공장의 감독을 헤초우(He-Chou)라고 불리는 소그드 인에게 맡겼다고 한다. 그는 또한 건물 외벽을 장식하는 타일의 제조에도 뛰어난 재주가 있었다고 한다.

실제로 중앙아시아에서의 직조 기술은 중국을 능가했으며 특히 이국적 취향을 즐기던 당나라 궁전에서 큰 인기가 있었다. 이 시기에 거의 모든 예술 분야에서 소그드문화는 중국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 중에서도 서역의 화가들이 특히 환대를 받았으며 조각이나 금속 공예에서도 서역 문화의 흔적은 쉽게 발견되고 있다.

소그드 족이 중국 및 중앙아시아 문화에 끼친 믿을 수 없는 영향력은 오늘날 역사적 발굴과 연구 성과로 생생하게 되살아나고 있다. 사실 중국이 7일로 구성된 1주일이라는 시간 단위를 채택한 것도 고대 메소포타미아 및 조로아스터교의 역법을 발전시켜 만든 소그드인들의 역법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왕성한 활동을 자랑하던 소그드인들은 호도[32], 포도[33], 석류[34] 등 많은 종류의 서역 과일과 채소를 중국에 소개했으며 그들의 음악 또한 호악(胡樂)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에서 아악(雅樂), 속악(俗樂)과 함께 유행했다.

서역에서 들어온 대표적인 악기는 한나라의 장건이 서역사행 중에 월지(月氏)로부터 들여온 관악기 횡적(橫笛), 피리의 원조인 필률(觱篥), 페르시아의 가장 대표적인 현악기였던 오현비파(五絃琵琶), 한국문학사상 가장 오래된 작품인 공후인에 등장하는 된 공후(箜篌), 그 밖에 소(簫), 박판(拍板), 요고(謠鼓), 동발(銅鈸) 등 8가지 악기가 있다. 이 중에 소는 페르시아어로 수르나(surna)이다. '잔치, 연회' 등을 의미하는 수르(sur)와 '갈대 피리'를 의미하는 나이(nai)의 페르시아어 합성어로서 역사가 오래된 페르시아 전통 관악기 중

32) '오랑캐의 복숭아'라는 의미의 호도(胡桃)는 복숭아씨처럼 생겨서 이러한 이름이 붙여졌다. 중국에서는 산스크리트어를 전사해 파라사(播囉師, po-lo-si)로 표기했는데 이것은 바로 ,파르사(Parsa), 즉 페르시아를 의미한다.

33) 포도(葡萄)의 어원은 중세 페르시아어 buduwa이며 현대 페르시아어에서 bāde는 포도주를 의미한다.

34) 석류(石榴)는 처음에 안석류(安石榴)라고 불렀다. 여기서 류(榴)는 순수한 중국어이며 안석(安石)은 파르티아(Parthia) 제국을 지칭했던 안식(安息)의 도 다른 이름이다. 파르티아 황실 가문의 이름인 아르삭(Arsac)이 한자로 전사된 것이다.

의 하나이다.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큰 잔치가 열렸을 때 야외에서 연주되는 큰 소리의 악기이다. 그래서 그 큰 소리 때문에 페르시아에서는 "수르나의 소리는 먼 데서 들어야 제 격이다"라는 속담까지 생겨났다. 그 사용은 기원전 6세기의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제국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주로 도시의 성문이 닫힌 후 저녁 시간을 알리는데 이 악기가 사용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전통은 유럽에도 전해져 영국에서는 19세기까지도 같은 기능으로 이 악기가 사용되었다. 유럽에는 샤움(shawm)이라는 이름으로 전래되었으며 현대 악기 오보에(oboe)의 기원이 되었다. 수르나는 인도에서 셰흐나이(shehnai)라는 이름으로 전래되었는데 '왕'이라는 의미의 셰흐(sheh)와 역시 갈대피리라는 의미의 나이(nai)가 합성된 페르시아어이다. 중국에는 수오나(suona, 嗩吶)라는 이름으로 한나라 시대에 전래되었다. 한국에서는 고려시대에 중국으로부터 전래되어 서역의 피리라는 의미로 호적(胡笛)이라고 불리었으며 나중에 태평소(太平簫)라는 이름으로 정착했다. 또한 비파(琵琶)의 페르시아어 어원은 바르바트(barbat)인데 페르시아의 전설적인 비파 연주의 달인 이름에서 따온 악기이다. 비파의 중국어 음 피파(Pipa), 한글의 비파(Bipa), 일본어 음 비웨(Biwe) 등은 모두 바르바트가 음운변화된 것이다. 어떤 악기들은 페르시아 어원의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는가 하면 어떤 악기들은 새로운 이름으로 바뀌었지만 그 어원은 역시 페르시아어이다. '줄'이라는 의미의 페르시아어 타르(tar)는 전 세계 많은 현악기에 그 이름을 제공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기타(Guitar)와 시타르(Sitar)이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시리악 문자를 세로쓰기로 변형시켜 만든 소그드 문자는 위구르족을 비롯한 중앙아시아의 여러 민족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위구르족은 이슬람화 된 이후에는 아랍문자를 채택했지만 그 이전에는 소그드 문자를 자신들의 언어를 표기하는 데에 사용했다. 위구르족은 이 문자를 다시 몽골족에게 전해주어 오늘날까지도 중국의 내몽골 자치구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소련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몽골 공화국도 자신들의 전통문자 부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만주족의 청나라 역시 한 때는 이 문자를 변형해 채택했었다. 위구르 문자는 심지어 세종대왕의 한글창제에도 큰 동기를 부여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일본에서도 화려함을 절제한 소그드 문화의 흔적이 발견되고 있다. 나라현의 신사인 정창원(正倉院)에 보관되어 있는 9,000점의 유물은 대부분 8세기의 당나라 유물이지만 그 중에 실크, 금속 공예품, 유리 제품, 악기 등의 상당수는 소그드 인들의 작품으로 판명되었다. 즉, 이전에는 이 유물들이 페르시아와 당나라 사이의 교역품으로 간주되었지만 최근의 연구는 당나라에 진출해 활약하던 소그드 장인들의 작품이라는 학설이 일본 학자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각지의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신라시대의 당나라 유물이나 신라 고분에서 출토된 당나라 유물들 중에도 소그드인들의 작품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되어 이에 대한 더욱 세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주제어: 조로아스터교, 자르토쉬트, 소그드족, 마니교, 실크로드, 아베스타, 잔드, 천교, 화천교, 배화교, 중국

참 고 문 헌

Azarpay, G(1981). *Sogdian Painting*, Berkeley.

Back, Michael(1978). *Die Sassanidischen Staatsinschriften: Studien zur Orthographie und Philologie des Mittelpersischen der Schriften*, Acta Iranica 18, Leiden.

Bailey, Harold W.(1943). *Zoroastrian Problems in the Ninth-Century Books*, Oxford.

_____(1953). "Indo-Iranian Studies" *Transactions of the Philological Society* 52.

Benveniste, Emile(1933). "L'Ērān-vēž et l'origine légendaire des Iraniens," *BSOS* 7.

Boyce, Mary(1975). *A Reader in Manichaean Middle Persian and Parthian: Texts with Notes*, Acta Iranica 9, Leiden.

_____(1975-82). *A History of Zoroastrianism*, Vols. I-II, Leiden.

_____(1979). *Zoroastrians: Their Religious Beliefs and Practices*, London.

Boyce, Mary and Grenet, Franz(1991). *A History of Zoroastrianism* III: *Zoroastrianism under Macedonian and Roman Rule*, Leiden.

Cai Hongsheng (蔡鴻生)(1998). *唐代九姓 胡與突厥文化 (The nine-surnames of non-Chinese in the Tang dynasty and Turkic culture)*, 北京: 中華書局.

Dandamaev, Muhammad A.(1989). *A Political History of the Achaemenid Empire*, Leiden.

Duchesne-Guillemin, Jean(1962). *La religion de l'Iran ancien*, Paris.

Dumézil, George(1945). *Naissance d'archanges*, Abbeville.

Foltz, Richard C.(1999). *Religions of the Silk Road: Overland Trade and Cultural Exchange from Antiquity to the Fifteenth Century,*

New York: St. Martin's Press.

Frye, Richard N.(1992). "Zoroastrians in Central Asia in Ancient Times", *Journal of the K. R. Cama Oriental Institute 58*.

Gershevitch, Ilya(1959). *The Avestan Hymn to Mithra*, Cambridge.

_____(1964). "Zoroaster's Own Contribution", *Journal of Near Eastern Studies 23-1*.

Gignoux, Philippe(1968). "L'Inscription de Kartir à Sar Mašhad," *JA* 256.

_____(1983). "Middle Persian Inscriptions," *Cambridge History of Iran* III/2.

_____(1985). *De Zoroastre à Mani*, Pais.

Gignoux, Philippe(1989). *The Idea of Iran: An Essay on Its Origin*, Rome.

_____(2001). *Man and Cosmos in Ancient Iran*, Rome.

Gnoli, Gherardo(1980). *Zoroaster's Time and Homeland: A Study on the Origins of Mazdeism and Related Problems*, Naples.

Grenet, F. and Zhang Guangda(1996). "The Last refuge of the Sogdian Religion: Dunhuang in the Ninth and Tenth Century" *Bulletin of the Asia Institute*, new series 10.

Gronke, Monika(1993). "Derwische im Vorhof der Macht. Sozial und Wirtschaftsgeschichte Nordwestirans im 13. und 14. Jahrhundert" *Freiburger Islamstudien 15*, Stuttgart: Franz Steiner Verlag.

Hansen, Valerie(2005). "The Impact of the Silk Road Trade on a Local Community: The Turfan Oasis, 500-800" *Les Sogdiens en Chine*, Edited by Etienne de la Vaissiere and Eric Trombert, Paris: Ecole Francaise d'Extreme Orient.

Henning, Walter Bruno(1951). *Zoroaster: Politician or Witchdoctor*, Oxford.

Hertel, Johannes(1924). *Die Zeit Zoroasters*, Leipzig.

Herzfeld, Ernst(1933). "The Traditional Date of Zoroaster" *Oriental Studies in Honour of Cursetji Erachji Parvy*, Edited by Jal Dastur C. Parvy, London.

_____(1947). *Zoroaster and His World*, 2 vols., Princeton.

Hinz, Walther(1970). "Die Inschrift des Hohenpriesters Kardēr am Turn von Naqsh-e Rostam", *AMI*, NS 3.

Ibn Isfandiyār(1968). *The Letter of Tansar,* Translated by Mary Boyce, Rome.

_____(1975). *Nāma-ye Tansar,* Edited by Mojtabā Minovi, Tehran.

Jackson, A. V. Williams(1896). "On the Date of Zoroaster", *JAOS* 17.

_____(1899). *Zoroaster, the prophet of ancient Ira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Jacobs, Bruno(1991). "Der Sonnengott im Pantheon der Achämeniden" *La religion iranienne à l'époque achéménide*, Edited by J. Kellens, Gent.

Jaeger, W.(1948). *Aristotle, Fundamentals of the History of his Development*, Oxford.

Juliano, A. and Lerner, L. J. A.(1998). "Cultural Crossroads: Central Asian and Chinese Entertainers on the Miho Funerary Couch" *Orientations* Vol. 28, No. 9, October.

Kageyama Etsuko(影山悅子)(1997). "The Ossuaries (Bone - receptacles of Zoroastrians) Unearthed in Chinese Turkestan" *Bulletin of the Society for Near Eastern Studies in Japan,* 40-1.

Karetzky, P. E.(1984). "Foreigners in Tang and Pre-Tang Painting" *Oriental Art* vol. XXX, No. 2, Summer.

Kellens, Jean(1988). *Les textes veiel-avestiques* I, Wiesbaden.

Khlopin, I. N.(1992). "Zoroastrianism - Location and Time of its Origin", *Iranica Antiqua* 27.

Kingsley, P.(1990). "The Greek Origin of the sixth-Century dating of Zoroaster", *Bulletin of SOAS*, LIII.

Klima, Otakar(1959). "The Date of Zoroaster", *Archiv Orientali* 27.

_____(1977). *Beiträge zur Geschichte des Mazdakismus*, Prague.

Lerner, J.(1995). "Central Asians in Sixth-Century China: a Zoroastrian Funerary Rite" *Iranica Antiqua* vol. XXX.

Leslie, D. D.(1981). "Persian Temple in T'ang China" *Monumenta Serica* vol. 35.

Lommel, Herman(1930). *Die Religion Zarathustras nach dem Awesta dargestelt*, Tübingen.

Mackerras, C.(1972). *The Uighur Empire According to the T'ang Dynastic Histories. A Study in Sino-Uighur Relations 744-840*, Canberra.

Mair, Victor(1990). "Old Sinitic *Myag, Old Persian Magus, and English 'Magician,'" *Early China* 15.

Markwart, Joseph(1930). "Das erste Kapitel der Gatha Uštavati" *Orientalia 50*, Rome.

Mayrhofer, Manfred(1977). *Zum Namengut des Avesta*, Vienna, Verlag der Österreich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Nigosian, Solomon Alexander(1993). *The Zoroastrian Faith: Tradition and Modern Research*, McGill-Queen's Press.

Nöldeke, T.(1879). *Geschichte der Perser*, Leiden.

Nyberg, Henrik Samuel(1966). *Die Religionen des alten Irans*, Translated by Hans Heinrich Schaeder, Leipzig.

Rawson, J.(1991). "Central Asian Silver and Its Influence on Chinese Ceramics" *Bulletin of the Asia Institute* vol. 5.

Rong Xinjiang(榮新江)(1999). "北朝隨唐粟特人的遷徙及其聚落 (The Sogdian Migration and Colonies in pre-Tang and Tang China)", *國學研究*, 北京大學中國傳統文化研究中心)-6.

Root, Margaret C.(1975). *The King and Kingship in Achaemenid Art*, Leiden.

Russell, James(1987). *Zoroastrianism in Armenia*, Cambridge: Mass.

Sarianidi, V.(1987). "South-West Asia: Migrations, the Aryans and Zoroastrians",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Cultures of Central Asia Information Bulletin 13*.

Scaglia, G.(1958). "Central Asians on a Northern Ch'i Gate Shrine" *Artibus Asiae* XXI/I.

Schafer, E. H.(1951). "Iranian Merchants in T'ang Dynasty Tales" *Semitic and Oriental Studies* vol. XI.

Schlerath, B(1977). "Noch Einmal Zarathustra", *Die Sprache 23-2*.

Schmitt, R.(1996). "Onomastica Iranica Platonica," *Lēnaiká: Festschrift für Carl Werner Müller,* Edited by Christian Mueller-Goldingen and Kurt Sier, Stuttgart and Leipzig.

Schwartz, Martin(1981). "The Old Eastern Iranian Worldview According to the Avesta", *Cambridge History of Iran* II.

Schwartz, Martin(1983). "The Religion of Achaemenian Iran" *Cambridge History of Iran* II.

_____(1999). "Avestan Quotations in Old Persian" *Irano-Judaica* IV, Edited by S. Shaked and A. Netzer, Jerusalem.

Shahbazi, A. Shapur(1977). "The Traditional Date of Zoroaster Explained", *BSOAS* 40.

_____(2002). "Recent Speculations on the 'Traditional Date of Zoroaster'", *Studia Iranica* 31/1.

Sheng, A.(1998). "Innovations in Textile Techinques on China's Northwest Frontier, 500-700 CE" *Asia Major* vol. XI, part 2.

Stausberg, Michael(2002). *Die Religion Zarathustras: Geschichte, Gegenwart, Rituale*, 2 vols., Stuttgart.

Thieme, Paul(1957). "Vorzarathustrisches bei den Zarathustriern und bei Za rathustra" *ZDMG*, 107.

Vaissière, Étienne de la(2002). *Histoire des marchands sogdiens*, Paris: De Boccard.

Werba, Chlodwig(1982). *Die arischen Personennamen und ihre Träger bei den Alexanderhistorikern*, Studien zur iranischen Anthroponomastik, Vienna.

Widengren, Geo(1965a). *Die Religionen Irans*, Stuttgart.

_____(1965b). *Mani and Manichaeism,* Translated by Charles Kessler, New York, Chicago, and San Francisco.

_____(1983). "La recontre avec la daēnā, qui represente les actions de l'homme" *Orientalia Romana: Essays and Lectures 5, Iranian Studies*, Edited by Gherardo Gnoli, Rome.

Wu Hung(巫鴻)(2001). *漢唐之間文化藝術與互動與交融* (Between Han and Tang: Cultural and Artistic Interaction in a Transformative Period), 北京: 文物出版社.

Yarshater, Ehsan(1983). "Mazdakism", *Cambridge History of Iran* III/2.

Yutaka, Yoshida(吉田豊)(2004). "On the Origin of the Sogdian Surname Zhaowu(昭武) and Related Problems", *Journal Asiatique*, No. 291.

Zaehner, Robert C.(1955). *Zurvan, A Zoroastrian Dilemma*, Oxford.

_____(1961). *The Dawn and Twilight of Zoroastrianism*, London.

Zhang Guangda(張廣達)(1999). 吐魯番出土漢語文書中所見伊朗語地區宗教的踪跡(Traces of Iranian religion as seen in the Chinese documents excavated from the Turfan region), *敦煌吐魯番研究 4*.

_____(2000). "Iranian Religious Evidence in Turfan Chinese Texts" *Zoroastrianism in China, China Archaeology and Art Digest,* IV-1, December, Hong Kong.

인터넷

[i-1]

http://www.cais-soas.com/cais/Religions/iranian/Zarathushtrian/Oric.Basirov

(Basirov, Oric, "Zoroaster's Time and Place" A series of lectures - Paper 1, The Circle of Ancient Iranian Studies, 1998)

[i-2]

http://www.iranchamber.com/history/articles/soghdiana.php

(Compareti, Matteo, Soghdiana, "Iranian Culture in Central Asia")

[i-3]

http://www.tobunken.go.jp/~bijutsu/english/publications/bijutukenkyu/abstract/384_Ei.html (Rong Xinjiang, "From Sogdia to China: The Transformation of Sogdian Zoroastrian Art during its Eastward Migration")

[i-4]

http://www.chinaknowledge.org/Literature/Religion/xianjiao.html

(Zoroastrianism (*Xianjiao* 祆教), CHINAKNOWLEDGE - a universal guide for China studies)

신양섭
소 속 한국외국어대학교 이란어과
이메일 ilyashin@hanmail.net

논문접수일 2009년 5월 25일
심사완료일 2009년 6월 9일
게재확정일 2009년 6월 19일